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 지 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소득, 부모 학력 및 가정환경의 물리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3세 때 가정환경의 영향이 4세에도 지속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3세에는 26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92명이 4세에도 참여하였다. 3세에는 가정환경(HOME)과 아동발달검사(K-CDI)의 언어 소검사를 실시하였으며, 4세에는 피바디 그림어휘검사(PPVT)를 사용하여 이해어휘를 측정하였다. 3세의 가정환경은 물리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영역은 다시 두 개의 범주로 세분되었다. 그 결과, 첫째, 3세의 수입, 학력,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 모두 3세 언어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4세 어휘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둘째,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환경의 행동적 영역은 표현언어를 예측하였으며, 행동적 영역의 학습적 행동과 물리적 영역의 학습자극은 언어이해를 예측하였다.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은 어머니의 학력과 물리적 학습자극이 그리고 중/고소득층은 부모의 학습적 행동이 아동의 언어발달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부모 행동의 영향은 물리적 지원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사회경제적지위(SES), 물리적 가정환경, 행동적 가정환경, 표현언어, 언어이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이하 SES)는 아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SES가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 출신 아동들의 인지 기능, 언어능력, 학업적 성취 및 사회적 유능성에서 차이

가 확인되었다(Bradley & Whiteside-Mansell, 1997; Brooks-Gunn, & Duncan, 1997; Smith, Brooks-Gunn, & Klebanov, 1997). 예를 들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고소득 가정에 비해 IQ, 언어능력, 및

* 교신저자: 곽금주, E-mail: kjkwak@snu.ac.kr

* 이 논문은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05-J09502)

성취 검사 점수가 낮았다(Smith et al., 1997).

Bronfenbrenner(1979)는 발달하는 사람은 여러 환경체계의 중심에 들어있다고 하였다. SES는 직접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기보다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환경을 결정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장환경을 나타내는 SES의 구성요소는 수입,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이다(Bradley & Corwyn, 2002). 이것은 물질적인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정의 소득은 물질적인 자원이며 부모의 직업과 학력은 비물질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Bornstein, Hahn, Suwalsky, & Haynes, 2003). Bradley와 Corwyn (2003)은 SES의 지표로서 부모의 직업, 수입, 학력이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정, 학력, 수입을 반영하는 프레스티지(occupation prestige)가 SES 지표로 사용되었다(Duncan, 1961). SES의 세 가지 지표와 아동의 어휘, 읽기, 수학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학력 보다는 약하지만 수입보다 다소 더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SES 정의에 따라 SES와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지표로 사용하기보다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듯하다. 그러나 이 중에서 부모의 직업은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며 계량화에 문제가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직업을 SES의 지표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동발달 연구들에서 SES는 가정의 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근거로 규정되고 있다(Bornstein et al., 2003, Mistry, Biesanz, Chien, Howes, & Benner, 2008). 특히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발달에서 중요한 요인이다(Bornstein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

정의 소득, 어머니 학력, 및 아버지 학력을 통해 SES와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SES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투자 관점(investment perspective)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화 관점(socialization perspective)이다(Mistry, et al., 2008). 투자 관점에서 SES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재화, 서비스, 경험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있다(Becker, 1991). 예를 들면, 인지적으로 자극하는 재료들(예, 책, 교육적 장난감, 미디어)이나 교육적인 활동들에 대한 참여(예, 아동과 책읽기, 인쇄물에 대한 노출, 박물관이나 도서관 방문 등)는 아동의 인지적, 학업적 기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 다음으로 사회화 관점에서 SES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 과정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킨다(Conger, Wallace, Sun, Simons, McLoyd, & Brody, 2002). 예를 들면 열악한 경제적 상태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다. Conger 등(2002)은 이런 관계에 기초하여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가족스트레스모델(family stress model)에 따르면, 낮은 소득과 부정적인 재정적 사건들로 인한 경제적 압박(economic pressure)은 양육자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결과 양육자 간의 관계는 갈등적이거나 위축된다. 이런 양육자들 간의 관계는 양육에 몰입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모델은 경제적 상태로 인한 부모의 정서상태가 공격성이나 우울과 같은 아동의 행동문제나 적응행동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Conger et al., 2002). 또한 SES는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이나 훈육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Hart & Risley, 1995).

SES와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투자 관점에서 볼 때 가정에 구

비되어있는 다양한 책이나 장난감들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정에 구비된 책의 수와 어휘 발달 간에 관련이 있다 (Payne, Whitehurst, & Angell, 1994; Tomopoulos, Dreyer, Tamis-LeMonda, Plynn, Rovira, Tineo, & Mandelsohn, 2006). 또한 Evans(2006)는 소음, 밀집(crowding), 주택의 형태나 거주지역과 같은 요인들은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밀도가 높은 가정의 아동과 부모들은 보다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Baldassore, 1981; Bartlett, 1998), 아동에게 말을 더 적게 하는데(Wachs, 1979), 이런 형태의 상호작용은 언어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Hart & Risley, 1995). 실제로 Goduka, Poole과 Aotaki-Phenice(1992)는 보다 붐비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학령전 아동들은 언어와 수학적 능력에서 결함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처럼 아동이 성장하는 물리적 환경은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SES의 사회화 관점에서 부모의 행동은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방식은 많은 연구들에서 핵심 주제였다. 실제로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서 SES에 따른 차이는 아동의 언어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이선, 1991; 김지호, 2007;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Hart & Risley, 1995, Whitehurst, Falco, Lonigan, Fischel, & Caulfield, 1988). Hart와 Risley(1981; Hart & Risley, 1995에서 인용)는 언어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층 아동(Turner House)과 교수의 자녀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사이의 어휘 성장 간격(gap)이 점차 더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Hart와 Risley(1995)는 3년 동안 42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을 밝혀냈다. 각 가정은

부모의 수입, 학력, 직업 등에 근거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professional, working class, welfare family). 그들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어머니와 상호작용 경험에서 질과 양에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행동은 아동의 어휘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언어와 관련된 두 가지 상호작용은 언어적 자극의 양이나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이나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는 확장과 같은 학습적인 상호작용(Hart & Risley, 1995; Whitehurst et al., 1988)과 아동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는 반응적이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Tamis-LeMonda, Bornstein, & Baumwell, 2001). Tamis-LeMonda 등(2001)의 연구에서 영아의 정서적 표현성에 대해 어머니의 반응성은 아동의 언어 발달과 관련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행동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들에서, 인지적 자극, 어머니의 민감성, 정서적 지지, 그리고 지시나 제약, 처벌과 같은 침입적(intrusive) 행동 등이 비교되었다(Culp, Hubbs-Tait, Culp, & Starost, 2000; Fagot & Gauvain, 1997; Olson, Bates, & Kaskie, 1992). 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적 자극은 이해어휘(Olson et al, 1992), 표현어휘(Fagot & Gauvain, 1997)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 지지에 대한 결과들은 차이를 보이는데, Fagot과 Gauvain(1997)은 정서적 지지가 표현어휘와 관련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Olson 등(1992)의 연구에서는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인지적 행동과 아동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는 확고해 보이는 반면, 부모의 정서적 행동과 아동의 언어발달 간 관계는 다소 불안정해 보인다. 즉, 아동의 언어발달에서 부모 행동의 정서적인 측

면보다 인지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물리적 자극이나 주거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아동에 대한 행동의 차이는 SES와 언어발달 간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 각각이 아동의 언어발달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과 부모 행동의 방식을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예를 들면, Raviv, Kessenich와 Morrison(200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민감성과 인지적 자극이 언어발달의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지만, 물리적 변인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SES에 따른 부모 행동의 연구(Hart & Risley, 1995; Tamis-LeMonda et al, 2001; Whitehurst et al, 1988)에서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들이 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실생활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요인들이며, 따라서 이 둘을 동시에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행동은 인지적, 학습적인 행동과 반응적, 정서적인 행동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부모의 서로 다른 행동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이슈는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동시적(concurrent) 발달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가정환경, 특히 빈곤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빈곤 상태가 시작된 시점과 지속 기간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Brooks-Gunn & Duncan, 1997;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 Smith et al., 1997). 이 연구들에 따르면 빈곤의 경험과 만성적 빈곤은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친

다. 그러나 빈곤타이밍의 경우, 연구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4세 이전(Brooks-Gunn & Duncan, 1997; Hart & Risley, 1995)의 환경을 강조하는 연구와 4세 이후(NICHD, 2005)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는 연구로 나누어진다. 연구들에서 4세를 중심으로 나누는 것은 이때가 되면 어린 아동들이 가족 외의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Brooks-Gunn과 Duncan(1997)의 경우, 4세 이전의 경험은 가족에 한정되기 때문에 가정환경의 결핍의 차이는 아동의 발달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반면, 외부 보육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가정환경의 문제들이 보완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에 반해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5)에 따르면, 빈곤은 보육시설의 선택에서 차이를 유발하고, 이것은 가정환경의 문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 결과들은 경제적 상태에 대한 경험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시기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Hart(2000)는 4세 이후 언어적 중재프로그램들의 효과가 적은 것과 관련하여, 4세 이전 언어발달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4세를 중심으로 한 빈곤타이밍에 대한 결과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빈곤타이밍에 대한 연구들(Brooks-Gunn & Duncan, 1997; NICHD, 2005; Smith et al., 1997)은 환경을 중심으로 아동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발달의 안정성(이지연, 장유경, 2005; Senechal, Thomas, Monker, 1995; Stanovich, 1986)은 환경이 외에 인지능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개인차가 유지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발달에 대한 환경의 영향은 유사한 환경적 요소(빈곤)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NICHD, 2005). 따라서 빈곤타이밍과 같이 특정시기의 환경이 실제적으로 아동발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는 환경적 영향의 지속성(만성적 빈곤)과 가능한 다른 혼합변인들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접한 두 시기의 환경과 발달 간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분명해질 것이다. 빈곤타이밍의 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4세 이전과 이후 경험에 대한 논란에 비추어보면, 3세 가정환경과 4세 언어발달 간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세 행동적 가정환경과 물리적 가정환경이 4세의 언어 발달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빈곤이 취학 전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에 참여하는 아동들이었다. 3세에 266명이 그리고 4세에 92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3세에는 266명 중에서 남아가 136명(51%)이고 여아가 130명(49%)이었으며, 4세에는 92명 중에서 남아가 37명(40%)이었고 여아가 55명(60%)이었다. 가계 소득을 살펴보면, 3세에는 평균 353만원($SD=293.79$)이었고 범위는 0~2500만원이었

고, 4세에는 평균 340만원($SD=266.20$)이었고 범위는 0~2000만원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도구

3, 4세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 부모의 학력, 수입과 지출, 가족사항에 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발달환경 측정>

3세 가정환경: 아동의 가정환경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김정미와 곽금주(2007)가 타당화한 Caldwell과 Bradley(2003)의 유아용 가정환경자극 척도(EC-HOME)를 사용하였다. EC-HOME은 학습도구, 학업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도구다양성, 언어적 자극의 6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판 EC-HOME의 신뢰도 계수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요소가 포함되었는지에 근거하여 EC-HOME의 6요인을 행동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영역은 두 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어졌다. 행동적 영역은 학습적 행동(학업자극, 언어적 자극)과 정서적 행동(반응성)으로, 그리고 물리적 영역은 학습자극(학습도구, 도구다양성)과 주거환경(물리적 환경)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의 문항 예는 다음과 같다. 학습적 행동은 “아동에게 색깔을 가르친다”, “아동에게 한글을 가르친다”, 정서적 행동은 “부모는 아동에 대해 2번 이상 칭찬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심하게 격분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 학습자극은 “퍼즐이 세 가지이상 있다”, “숫자를 배울 수 있는 장난감이나 놀이도구가 있다”, 그리고 주거환경은 “살고있는 건물이 안전하며 위험이 없어 보인다”, “주거공간은 가족 한 사람 당 약 3평 정도이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표 1. 부모 학력의 빈도와 백분율

| (졸업) | 아버지 | | 어머니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중학교 이하 | 3 | 1.0 | 4 | 1.4 |
| 고등학교 | 86 | 30.1 | 99 | 34.6 |
| 전문대학교 | 15 | 5.2 | 26 | 9.1 |
| 대학교 | 133 | 46.5 | 126 | 44.1 |
| 대학원 이상 | 29 | 10.1 | 16 | 5.6 |

* 백분율의 총합이 100이 되지 않는 것은 결측값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언어발달 측정>

결 과

3세 언어발달: 아동의 언어적 발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Ireton(1992)이 개발하였고, 김정미와 신희선(2006)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K-CDI 아동발달검사의 표현언어와 언어이해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표현언어 소검사는 “왜, 언제, 또는 어떻게를 묻는 질문을 한다”, “10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긴 문장을 말한다”, “복수형 대명사를 사용한다” 등의 50 문항이고 언어이해 소검사는 “몇 개의 사물에 대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안다”,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말한다” 등의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이다.

4세 이해어휘: 아동의 이해어휘는 피바디 그림 어휘력 검사(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네 가지 그림 중에서 검사어휘에 맞는 그림을 찾는 검사이다.

절차

아동의 성장환경과 언어발달에 대한 자료는 3세 때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정환경(EC-HOME), 및 아동발달검사(K-CDI)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4세 때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설문지는 아동의 가정으로 발송하였으며, 어머니가 작성한 후 반송하였다.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은 3세에 K-CDI 중 표현언어와 언어이해 소검사를 가정에서 어머니가 작성하였으며, 4세의 이해어휘(PPVT)는 아동이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자가 실시하였다.

SES와 3, 4세 언어발달

사회경제지위와 학령전기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소득 및 부모 학력과 3세 표현언어와 언어이해(K-CDI), 4세 이해어휘(PPVT)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표 2에는 소득, 부모학력, 3세 언어와 4세 언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었고 표3에는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이 제시되었다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과 3세의 언어발달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표현언어: $r=.210, p<.01$, 언어이해: $r=.232, p<.01$, 4세 이해어휘와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78, p<.05$. 부모의 학력과

표 2. 소득, 부모학력, 가정환경, 및 아동 언어의 평균과 표준편차

| | 평균 | 표준편차 |
|---------|--------|--------|
| SES | | |
| 소득 | 355.52 | 285.80 |
| 아버지 학력 | 3.37 | 1.08 |
| 어머니 학력 | 3.18 | 1.02 |
| 가정환경 | | |
| 학습적 행동 | 6.66 | 1.34 |
| 정서적 행동 | 4.08 | 1.43 |
| 학습 자극 | 3.38 | 1.04 |
| 주거 환경 | 4.63 | 1.24 |
| 아동 | | |
| 3세 표현언어 | 52.01 | 14.17 |
| 3세 언어이해 | 49.04 | 11.72 |
| 4세 이해어휘 | 65.29 | 31.07 |

** $p<.01$, *** $p<.001$

표 3. 소득, 부모 학력 및 아동 언어 간 상관

| | 3세 | | 4세 |
|-----|--------|--------|--------|
| | 표현언어 | 언어이해 | 이해어휘 |
| 소득 | .210** | .232** | .278* |
| 학력 | | | |
| 아버지 | .263** | .315** | .260** |
| 어머니 | .261** | .274** | .247* |

* $p<.05$, ** $p<.01$

표 4. 가정환경의 행동영역과 물리적 영역과 소득, 부모 학력, 아동 언어 간의 상관

| | 소득 | 학력 | | 3세 | |
|--------|--------|--------|--------|--------|--------|
| | | 아버지 | 어머니 | 표현언어 | 언어이해 |
| 행동 영역 | | | | | |
| 학습적 행동 | .234** | .304** | .229** | .328** | .382** |
| 정서적 행동 | .174** | .166** | .212** | .257** | .246** |
| 물리적 영역 | | | | | |
| 학습 자극 | .186** | .350** | .298** | .230** | .335** |
| 주거 환경 | .256** | .347** | .346** | .165** | .253** |

* $p < .05$, ** $p < .01$

표 5. 3세 표현언어와 언어이해의 회귀분석 β 값

| | 표현언어 | 언어이해 |
|--------|--------|--------|
| SES | | |
| 월평균소득 | .069 | .086 |
| 어머니 학력 | .163* | .062 |
| 행동적 영역 | | |
| 학습적 행동 | .204** | .189** |
| 정서적 행동 | .170** | .113 |
| 물리적 영역 | | |
| 학습 자극 | .032 | .194** |
| 주거 환경 | .001 | .091 |

* $p < .05$, ** $p < .01$

3세 아동의 언어발달 간에도 관련성이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과 3세 언어발달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표현언어: $r = .263$, $p < .01$, 언어이해: $r = .315$, $p < .01$, 4세 이해어휘와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260$, $p < .01$.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에도 아동의 언어발달과 상관을 보였다, 표현언어: $r = .261$, $p < .01$, 언어이해: $r = .274$, $p < .01$, 4세 이해어휘: $r = .247$, $p < .05$. 이 결과는 SES와 언어발달 간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환경과 언어발달

3세 때 가정환경과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소득, 부모 학력, 3세 언어발달과 가정환경(HOME)의 행동 영역과 물리적 영역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3세 가정환경의 행동 영역과 물리적 영역의 변인들 모두 3세 언어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가정환경이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발달의 예측인으로서 가정환경

SES의 지표인 가계소득, 부모의 학력, 가정환경의 물리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이 아동의 언어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지와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세의 표현언어와 언어이해 각각에 대해 실시되었다. 종속변인은 표현언어와 언어이해이고, 예측변인은 소득, 부모학력, 학습적 행동, 정서적 행동, 학습자극, 주거환경이었다. 입력(Enter)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력 간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아버지의 학력 변인은 제거되었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현언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6, 240) = 8.526$, $p < .001$. 조정된 $R^2 = .155$ 로 3세 표현언어의 15%를 설명하였다. 표5에서 각 변인들의 Beta 계수 값을 살펴보면, 3세 표현언어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SES 지표 중에는 어머니의 학력이었다, $\beta = .163$, $p < .05$. 그리고 가정환경에서는 행동적 영역에 속하는 학습적

행동과 정서적 행동이었다, 학습적 행동: $\beta=.204$, $p<.01$, 정서적 행동: $\beta=.170$, $p<.01$.

언어이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6, 240)=11.002$, $p<.001$. 조정된 $R^2=.196$ 으로서 3세 언어이해능력의 19%를 설명했다. 표5에서 나타난 Beta 계수 값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학습적 행동과 학습 자극이었다, 학습적 행동: $\beta=.189$, $p<.01$, 학습 자극: $\beta=.194$, $p<.01$. 표현언어에서는 학습적 행동이나 정서적 행동과 같은 부모의 행동적 측면이 중요한 반면, 언어이해에서는 학습적 행동이나 학습 자극처럼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계층별 언어발달에 대한 가정환경의 예측

2006년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통계청, 2006). 월 소득이 170만원 이하(13분위)인 가정은 저소득층으로, 170~350만원(47분위)인 가정은 중간소득층으로, 그리고 350만원 이상(8~10분위)인 가정은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각 계층에 따른 SES와 가정환경요인, 및 아동 언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소득계층 3집단은 소득, 어머니 학력, 가정환경 4 변인, 아동의 언어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세 집단은 서로 다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소득계층에서 SES와 가정환경이 아동의 언어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환경은 저소득층의 표현언어 25%와 언어이해를 15% 설명하는 반면,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는 언어이해를 각 16%와 9%를 설명하는 반면, 표현언어를 설명하지 못했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계층에 따라 표현언어와 언어이해를 예측하는 변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층 아동의 표현언어에 대한 예측인은 어머니 학력이며, $\beta=.466$, $p<.001$, 언어이해의 예측인은 물리적 학습자극이었다, $\beta=.324$, $p<.05$. 중간소득층의 경우, 학습적 행동이 아동의 언어이해를 예측하였으며, $\beta=.222$, $p<.05$, 아동의 표현언어를 예

표 6. 소득계층에 따른 SES, 가정환경, 언어능력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 | 저소득층(56) | | 중간소득층(107) | | 고소득층(84) | | F |
|--------|----------|-------|------------|-------|----------|--------|------------|
| | M | SD | M | SD | M | SD | |
| SES | | | | | | | |
| 소득 | 119.57 | 38.69 | 267.19 | 56.48 | 600.41 | 353.78 | 113.143*** |
| 어머니 학력 | 2.33 | .79 | 3.17 | .99 | 3.70 | .87 | 43.090*** |
| 가정환경 | | | | | | | |
| 학습적 행동 | 6.21 | 1.61 | 6.59 | 1.28 | 7.01 | 1.17 | 9.954*** |
| 정서적 행동 | 3.44 | 1.50 | 4.03 | 1.41 | 4.48 | 1.27 | 11.839*** |
| 학습 자극 | 7.98 | 1.27 | 8.29 | 1.12 | 8.64 | .77 | 9.201*** |
| 주거 환경 | 4.01 | 1.07 | 4.68 | 1.34 | 4.98 | 1.05 | 14.970*** |
| 아동 | | | | | | | |
| 표현언어 | 47.26 | 13.56 | 51.47 | 13.85 | 56.29 | 13.92 | 9.457*** |
| 언어이해 | 45.69 | 11.37 | 48.09 | 11.36 | 52.07 | 12.00 | 7.485** |

** $p<.01$, *** $p<.001$

표 7. 소득계층집단에 따른 3세 표현언어와 언어이해의 회귀분석 β 값

| SES | 저소득층 | | 중간소득층 | | 고소득층 | |
|--------|--------|-------|-------|-------|-------|-------|
| | 표현언어 | 언어이해 | 표현언어 | 언어이해 | 표현언어 | 언어이해 |
| 월평균소득 | .222 | -.012 | .080 | -.089 | .003 | .126 |
| 어머니 학력 | .466** | .214 | .086 | .102 | .013 | -.026 |
| 행동적 영역 | | | | | | |
| 학습적 행동 | .228 | .093 | .130 | .222* | .290* | .246* |
| 정서적 행동 | .125 | .183 | .177 | .121 | .138 | .077 |
| 물리적 영역 | | | | | | |
| 학습 자극 | -.094 | .324* | .065 | .159 | .000 | .129 |
| 주거 환경 | .054 | .077 | -.009 | .137 | .057 | .246 |

* $p < .05$, ** $p < .01$

표 8. 3세 가정환경과 4세 이해어휘간 상관

| | 3세 가정환경 | | | |
|---------|---------|--------|------|-------|
| | 학습적 행동 | 정서적 행동 | 학습자극 | 주거환경 |
| 4세 이해어휘 | .210 | .062 | .123 | -.121 |

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층의 경우, 학습적 행동이 아동의 표현언어와 언어이해 모두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인이었다, 표현언어: $\beta=.290, p < .05$, 언어이해: $\beta=.246, p < .05$.

언어이해에서 저소득층과 중간 및 고소득층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학습적 행동은 세 집단 모두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나, 물리적 학습자극에서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3세 가정환경의 영향

3세 가정환경과 4세 언어발달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4세 때 수입을 통제하여 4세 이해어휘와 3세 가정환경의 행동 영역과 물리적 영역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3세와 4세 사이에 변동이 없으므로 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선 언어발달에서 안정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세 표현언어, 언어이해와 4세 이해어휘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3세 표현언어와 4세 이해어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r=.377, p < .01$, 3세 언어이해와 4세 이해어휘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r=.353, p < .01$.

다음으로 3세의 가정환경과 4세 이해어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8에서 보듯이, 4세 이해어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3세 부모의 학습적 행동과 4세 이해어휘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경계선 수준에서 상관을 보였다, $r=.210, p < .10$. 이 결과는 가정환경은 동시기적 효과를 갖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초기의 발달환경으로서 부모의 수입과 학력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물리적 환경과 행동적 환경으로서 가정환경이 아동의 언어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득과 부모의 학력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득과 학력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아동이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행동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정환경 영역이 상대적으로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언어발달 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3세 때의 가정환경이 4세 언어발달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아동초기 특정시기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는 목적이었다.

우선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지표로서 소득, 부모의 학력, 아동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소득과 학력은 3세와 4세 언어발달과 관계가 있었다. 즉 가계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SES와 언어발달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art & Risley, 1995). SES는 물리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Mistry et al., 2008). 예를 들면, 높은 가계소득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하며, 부모의 학력은 아동에게 다양한 주제와 단어들에 노출하거나 혹은 상호작용의 특성과 관련 있다(Hart & Risley, 1995).

다음으로 가정환경 요인을 행동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행동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 모두 소득이나 부모학력과 상관성이 있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과 관련된 행동(가르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아동을 자극하는 도구들(물리적 학습자극)이 많았다. 또한 부모 행동영역과 물리적 영역은 아동의 언어능력과 상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가정환경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본 결과, 표현언어

와 언어이해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현언어의 경우, 부모의 행동영역인 학습적 행동과 정서적 행동이 유의미한 예측인이었으며, 언어이해의 경우에는 부모의 학습적 행동과 학습자극이 유의미한 예측인이었다. 이것은 아동초기 언어의 표현과 이해가 발달하는데 필요한 가정 환경적 요소들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언어적 표현은 부모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과 같은 외현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질문이나 칭찬과 같은 행동은 아동의 표현언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Hart & Risley, 1995; Whitehurst et al., 1988), 아동의 언어를 유도하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통해 자유롭게 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칭찬은 부모의 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며, 아동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반영한다(Tamis-LeMonda et al.,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적 행동은 아동의 언어이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Tamis-LeMonda 등(2001)의 연구에서는 민감성이나 공동주의와 같은 상호작용적 측면이 강조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정서적 지지라 할 수 있다(Fagot & Gauvain, 1997). 또한 어머니의 민감성이나 반응성에 대한 연구들(Tamis-LeMonda et al., 2001)이 3세 이전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해회회를 측정했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지시의 수행 뿐 아니라 사물의 기능이나 용도, '왜'나 '만일'과 같은 질문에 대한 추론, 사물의 특성들 간의 비교와 같은 상위인지적 요소들이 포함된 언어이해 능력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는 연구대상의 연령과 측정도구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 가지 참조물의 명칭을 아는 것과 여러 참조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능력이 발달하는데 필요한 환경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습자극과 언어이해간의

관계는 책이나 장난감과 같은 물리적 자극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의 행동적 자극이 적을 경우, 학습자극은 언어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득집단에 따른 분석의 결과는 이런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의 자기보고에 의한 측정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측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소득계층을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을 나누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층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과 학습자극 환경이 저소득층 아동의 표현언어와 언어이해의 발달을 예측한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부모의 학습적 행동이 표현언어와 언어이해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중간소득층의 경우 부모의 학습적 환경이 언어이해를 예측한 반면, 표현언어는 가정환경요인들로 설명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표현언어보다 언어이해가 가정환경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언어이해에서 나타난 소득계층별 차이이다. 본 연구의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학습적 행동은 세 집단 모두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나, 물리적 학습자극에서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행동은 물리적 인지 환경이 어느 정도 충족된 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Hart & Risley, 1995, Whitehurst et al., 1988)에서 아동발달의 계층차이를 부모의 행동적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언어 발달시기와 영역에 따라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물리적 지위에 따라 부모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물리적 학습 환경이 부모의 행동의 영향을 조정하는 변인(moderator)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3세 가정환경의 영향이 4세에도 지속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3세 가정환경은 4세 이해어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부모의 학습적 행동이 경계선 수준에서 관련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가정환경은 동시기적 영향을 끼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연구들(Brooks-Gunn & Duncan, 1997;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에서 확인된 결과에는 빈곤의 기간과 같은 다른 변인들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결과에 비추어볼 때, 발달의 특정시기 환경(즉, 빈곤 타이밍)의 영향력과 의미를 해석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다양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환경과 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동의 언어발달은 동시기적인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3세의 언어발달은 학습과 관련된 부모의 행동이나 자극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들 간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에 대한 정교한 개별 측정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3세와 4세의 발달환경이 다르다는 가정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즉 아동의 보육시설이나 다른 기관들에 대한 등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이선 (1991).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 작용이 언어-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

- 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김정미, 박금주 (2007). 3-6세 유아를 위한 가정환경자극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8, 115-128.
- 김정미, 신희선 (2006). K-CDI 아동발달검사.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지호 (2007).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언어발달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131-146.
- 이지연, 장유경 (2005). 영아초기 어휘발달의 특성: 8~18개월 영아의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 105-123.
- 통계청 (2006). 2006년 소득 10분위. http://www.kosis.kr/domestic/theme/do01_index.jsp에서 2008, 7, 11 인출.
- Baldassare, M. (1981). The effects of household density on sub groups. *American Sociology Review*, 46, 110-118.
- Bartlett, S. (1998). Does inadequate housing perpetuate children's poverty? *Childhood*, 5, 403-420.
- Becker, G.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rnstein, M. H., Hahn, C. S., Suwalsky, J. T. D., & Haynes, O. M. (2003).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The Hollingshead four-factor index of social status and the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In M. H. Bornstein, & R. H. Bradley(Eds.),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pp. 29~82). Mahwah, NJ: Erlbaum.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 Bradley, R. H., & Corwyn, R. F. (2003). Age and ethnic variations in family process mediators of SES. In M. H. Bornstein, & R. H. Bradley(Eds.),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pp. 161-188). Mahwah, NJ: Erlbaum.
- Bradley, R. H., & Whiteside-Mansell, L. (1997). Children in poverty. In R. T. Ammerman, & M. Hersen(Eds.), *Handbook of prevention and treat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3-58). New York: Wiley.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 844-850.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and Poverty*, 7, 55-71.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Little Rock: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179-193.
- Culp, A., Hubbs-Tait, L., Culp, R. E., & Starost, R. (2000). Maternal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school involvement: Predictors of

- kindergarten cognitive competence among Head Start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5, 5-17.
- Duncan, O. D. (1961). A socioeconomic index for all occupations. In A. J. Reiss (Ed.), *Occupations and social status*(pp. 109-161). New York: The Free Press.
- Evans, G. W. (2006). Child development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423-451.
- Fagot, B. I., & Gauvain, M. (1997). Mother-child problem solving: Continuity through the early childhood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480-488.
- Gershoff, E. T., Aber, J. L., Raver, C. C., & Lennon, M. C. (2007). Income is not enough: Incorporating material hardship into models of income association with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8, 70-95.
- Goduka I. N., Poole, D. A., & Aotaki-Phenice, L. (1992). A comparative study of black South African children from three different contexts. *Child Development*, 63, 509-525.
- Hart, B. (2000). A natural history of early language experienc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 28-32.
- Hart, B., & Risley, T. R. (1981). Grammatical and conceptual growth in the language of psychosocially disadvantaged childr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M. J. Begab, H. C. Haywood, & H. L. Garber (Eds.), *Psychosocial influences in retarded performance: Vol. 2. Strategies for improving competence* (pp. 181-198).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Hart, B., & Risle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Paul Brookes Publishing Co.
- Ireton, H. (1992). *Child Development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Behavior Science Systems.
- Mistry, R. S., Biesanz, J. C., Chien, N., Howes, C., & Benner, A. D. (2008).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investments, and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of low-income children from immigrant and native househol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193-212.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5). Duration and developmental timing of poverty and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from birth through third grade. *Child Development*, 76, 795-810.
- Olson, S. L., Bates, J., & Kaskie, B. (1992). Caregiver-infant interaction antecedents of children's school-age cognitive ability. *Merrill-Palmer Quarterly*, 38, 309-330.
- Payne, A. C., Whitehurst, G. J., & Angell, A. L. (1994). The role of home literacy environment i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ability in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 427-440.
- Raviv, T., Kessenich, M., & Morrison, F. J. (2004). A mediational model of the

-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three-year-old language abilities: the role of parenting fact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 528-547.
- Senéchal, M., Thomas, E., & Monker, J. (1995). Individual differences in 4-year-old children's acquisition of vocabulary during storybook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7, 2, 218-229.
- Smith, J. R., Brooks-Gunn, J., & Klebanov, P. (1997). The consequence of living in poverty for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verbal ability and early school achievement.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 Stanovich, K. E. (1986). Matthew effects in reading: Some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 360-401.
-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 Baumwell, L. (2001).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achievement of language milestones. *Child Development*, 72, 748-767.
- Tomopoulos, S., Dreyer, B. P., Tamis-LeMonda, C., Flynn, V., Rovira, I., Tineo, W., & Mandelsohn, A. L. (2006). Books, toys, parent-child interaction, and development in young latino children. *Ambulatory Pediatrics*, 6, 2, 72-78.
- Wachs, T. D. (1979). Proximal experience and early cognitive-intellectual development: the physical environment. *Merrill-Parlmer Quarterly*, 25, 3-41.
- Whitehurst, G. J., Falco, F. L., Lonigan, C. J., Fischel, J. E., Debaryshe, B. D., Valdez-Menchaca, M. C., & Caufield, M. (1988).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690-699.

1차 원고 접수: 2008. 7. 15

수정 원고 접수: 2008. 8. 11

최종 게재 결정: 2008. 8. 12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status(SES) and home environment on the languag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Ji-yeon Lee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m-joo Kwa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hysical and behavioral aspects of children's home environment at 3 years on the language development of the ages of 3 and 4 years. The total of 266 children($N=266$) at 3 years, and 92 children among them again at 4 year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EC-HOME for the home environment and K-CDI and PPVT for children's language ability were completed by their mothers and investigators. The home environment was divided into the physical and behavioral domain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language ability and both aspects of home environment at 3 years, but no relationship with receptive vocabulary at 4 years. Second, mother's education level and behavioral domains of home environment were the predictors on expressive language, but for language comprehension were the parental behaviors and physical stimuli to prompt to learn. Especially, mother's education level and physical stimuli were important for language comprehension in low-income families. The results implied that the effect of parent's behaviors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c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physical support providing to them in early childhood.

Keywords: socioeconomic status, physical and behavioral home environment, language